

강진군,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지역경제 '활력'

갈대축제기간 연계 매출 125% ↑ 고외식물가 부담 완화 역할 성과 국내 배달앱 중 중개수수료 최저 지역상품권 결제시 10% 할인 적용

강진군이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 개최를 기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먹깨비 할인 이벤트'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강진군에 따르면 '먹깨비 할인 이벤트'를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14일간 진행했다. 갈대 축제 기간인 지난 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는 최대 5000

원,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는 매일 3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했다.

강진군 먹깨비 할인 이벤트를 추진했던 14일간 주문 수는 7324건에 달했고 1억9200여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13건, 1억 600여만원이 늘어 총매출액이 125% 증가한 수치다.

강진군의 먹깨비 자체 할인 이벤트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해 소비자의 지갑을 열고 이를 통해 매출이 높아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할인 이벤트 기간을 축제 개최 기

간뿐만 아니라 축제 개최 전부터 시작해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동시에 할인 이벤트를 널리 알려 지난 6월 수국길 축제, 8월 하맥 축제에 이어 이번 갈대 축제에도 소비 증대 효과를 톡톡히 봤다.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전라남도에서 민관협력형 배달앱으로 출시된 이후부터 6일 기준 가맹점 수는 252개소, 누적 회원 수는 6280명, 누적 주문수는 17만여건, 총매출액은 45억1000여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전남도 22개 시·군 중 1위를 달성함으로써 강진군에서의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향한 지역 소상공인들과 주민들의 계속되는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 받았다.

먹깨비는 국내 배달앱 중 최저 중개수수료(1.5%), 가입비 및 광고료 무료,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10% 할인 적용 등 장점이 커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와 연계해 진행한 먹깨비 할인 이벤트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새 동력을 불어넣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강진군민과 소상공인의 물가 부담 완화와 매출 증가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법을 고안해 내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해남군,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 단체생활 아동 등 고위험군 대상

해남군은 최근 들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등 고위험군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독감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독감 인플루엔자는 대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므로 10월이나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집과 학교 등 단체 생활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독감 예방접종이 필수이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최소 2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기를 놓치면 기대했던 예방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제 시기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13세 이하 어린이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6세 이하 어린이는 관내 10개소 의료기관에서 토요일에도 접종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는 7세 이상 어린이부터 접종을 실시하며, 14~18세 청소년도 유료접종(1만원)이 가능하다.

해남군 관계자는 "면역기능이 약한 고위험군, 특히 13세 이하 어린이 건강 강화와 질병 예방을 위해 독감 접종에 적극 참여 해줄길 당부드리며 본격적인 추위가 오기전에 접종을 완료해 군민 모두가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가을철 진드기 등 감염병 주의 해남군, 예방수칙 준수 당부

해남군은 농산물 수확과 등산 등 야외 활동이 빈번한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6일 밝혔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히 가을철은 쯤쯤가무시증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야외활동 시 털진드기 물림 주의가 필요하다.

털진드기는 기온이 10~15도에서 왕성히 활동하며 여름철에 산란된 털진드기 알이 초가을에 부화해 활동량이 많아지게 된다.

쯤쯤가무시증 잠복기는 1~3주로 발열과 오한, 두통 등 초기 증상에 이어 기침, 구토, 근육통, 복통이 동반된다. 단순 감기몸살로 착각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예방백신이 없기 때문에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이 최선이다.

야외활동 시 긴소매와 긴바지, 모자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돗자리를 사용해 땅에 직접 앉지 않으며 귀가 후 즉시 세탁 및 목욕하는 등의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해남군보건소에서는 지난 4월부터 보건기관에서 진드기 기피제를 무료로 배부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주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로나 공원 등에 기피제 분사기 16개소를 설치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추수와 가을 단풍철 야외활동시에는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양파·마늘 '농작물 안전보험' 가입 무안군, 가입료 90% 지원

무안군은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빈번해지는 재해로부터 양파와 마늘 농가들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73개 품목 중 무안군의 주 생산작물인 양파(수입안정 포함)는 22일까지, 마늘(수입안정 포함)은 29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당초 시금치 가입 기간은 지난 1일까지였으나 호우로 인한 파종지연 등의 이유로 보험 가입 기간을 8일까지 연장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분증, 경영체등록증 등 농지의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이재광 식량원예과장은 "농작업이 많은 50대 이하 여성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 보험이 자부담금 지역농협 환원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부담이 완화됐으니 조속히 가입하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농작물 재해보험 외에도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또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료와 농기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무안=김행연 기자

청년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무안군, 취미·문화 활동 지원

무안군은 관내 청년센터에서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취미와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오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팝아트, 플라워, 베이킹 클래스 등 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신청은 13일까지 무안군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61-454-5732)로 문의하면 된다.

서명호 미래성장과장은 "무안 3만 청년들의 자기계발을 돕고 정주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 청년센터는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네트워킹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홀, 청년쉼터, 동아리실 등을 무료로 대관하고 각종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등 청년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무안=김행연 기자



영암군 곳곳 들녘에서 황토고구마 수확이 이뤄지고 있다.

영암군 제공

영암 들녘 황토고구마 수확 한창

영암군 곳곳 들녘에서 막바지 황토고구마 막바지 수확이 한창이다.

6일 영암군에 따르면 가을 수확해 저온 숙성 과정을 거친 영암 황토고구마는, 달달한 맛과 향, 게르마늄·갈륨 등 건강을 뒷받침하는 성분으로 겨울을 풍성하게 만드는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영암 들녘 황토고구마 수확이 '순조로운' 이유는 재배 과정에서 발생해오던 민원과 피해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황토고구마 밭은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과 함께 흙이 쓸려 내려가 가까운 논과 밭 등 농경지에 해마다 반복된 피해를 입혀왔다.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는 그 규모가 커 토사유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해마다 민원을 제기하며 영암군에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올해 3월 기준 영암군 전체 고구마 재배면적 1354ha의 12%가량에 해당하는

319필지 114ha에서 상습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영암군은 황토고구마의 명성을 생산 과정에서부터 단단히 다지기 위해 올해 초부터 토사유출 피해 최소화 조치에 나섰다.

지난 2·4·9월 3차례 '고구마 재배 농가 간담회'를 열어 농가 의견을 수렴하고 재배 의무사항 안내에 나섰다.

3월부터는 '상습 토사유출 대상지 정비'에 나서 집중호우 시 배수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예방 조치에 나섰다.

그 조치의 하나로 덕진·신북·시중·도포면 농업기반팀에 일상경비를 교부해 지난해 토사유출이 심했던 곳을 중심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농가의 동의를 이끌어 내 85ha는 농가에서 자체 정비하도록 유도했다.

나아가 6월에는 농가의 토사유출 피해 주의환기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 이행

점검'을 실시해 농가가 스스로 경작지 관리에 나서도록 만들었다.

7월 우승희 영암군수는 고구마 재배 농가에 편지를 보내 영암군 보물인 황토고구마를 지켜줄 것, 집중호우를 대비해 사전예방 조치를 취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일련의 의사소통과 홍보로 고구마 농가는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침사지를 만들고 영암군은 사전 배수로 준설과 정비를 실시하자 피해 민원이 줄었다.

영암군이 민관 협치로 황토고구마 재배 환경을 바꾼 결과 과거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 약방문' 격으로 군에서 배수로 준설에 나서던 관행이 혁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민관 협치로 해마다 반복되던 민원이 줄었다. 협치에 나서 준 고구마 농가에 감사드린다. 식량작물 품목별협의회를 통해 다른 농업 분야에서도 황토고구마 민관 협치의 모범을 적용·전파하겠다. 농가와 소통창구를 상시화해 내년도 사전 정비를 실시해 피해 최소화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신안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등급 확정

청년어선임대 등 160억원 투입

신안군은 6일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관하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 등급에 선정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

을 확보하게 됐다.

신안군은 중점사업인 Book 아일랜드 팔금 커뮤니티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청년 어선 임대, 취약지 섬 응급 의료기관 기능 개선,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사업 등 총 6개 기금사업에 16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 계획을 제출해 중점사업의 우수성과 기대효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신안군 관계자는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2025년 지방소멸대응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450억원을 확보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가장 많은 기금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3년 이래로 인구가 증가하는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